特 輯 大學施設을 診斷해 본다.

大學施設의 現況과 問題

金 永 哲
(韓國敎育開發院 首席硏究員)
孔 銀 培
(韓國敎育開發院 硏究員)

Ⅰ. 序 言

우리나라는 교육의 平等主義(egalitarianism)를 실현하기 위한 敎育機會의 확대 정책과 국민의 높은 敎育熱의 相乘作用으로 교육의 量的 成長은 크게 이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 비해 質的 秀越性(excellence)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달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원인은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교육의 양적 팽창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고 지원하기 위한 物理的 敎育環境이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리적 교육 환경이란 시설, 재정, 교제 등은 물론 학교의 주변 환경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지만, 敎育施設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操作的으로 정의할 때 각급 학교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교육시설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大學施設은 그 자체가 하나의 生活의 場이 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볼 때 이의 確保는 교육의 秀越性의 향상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本稿에서는 大學에서의 施設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그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현재 대학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의 현황을 분석하여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Ⅱ. 大學施設의 槪念 및 分類

흔히 敎育施設이란 강의실, 실험실, 도서관, 강당, 체육관, 운동장 등으로 나열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교육시설이 무엇이냐에 대한 명확한 槪念規定이 없으며, 또한 그 標準分類도 없이 사용되고 있는 듯하다. 단적으로 표현하여 이러한 교육시설에 관한 法令이라고 할 수 있는 「大學設置基準令」에도 교육시설에 대해 구체적인 개념 및 標準分類가 없이 모호하게 기술·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의 개념 및 분류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시설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시설이란 교육목적하에 나타나는 제반 敎育活動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교육시설은 교육활동, 보다 狹義의 개념으로는 敎授-學習活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는 데 필요한 물리적 환경이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교육시설은 교육목적의 달성 및 이를 위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空間의 物理的 環境 내지는 形態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 속에는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공간의 물리적 환경 내지 형태는 물론

空間內에 共同體 구성원의 휴식, 오락, 문화, 주거 등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과 형태까지도 모두 포함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형태까지 施設의 개념 속에 포함하는 것은 대학의 機能이 점차 多元化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강조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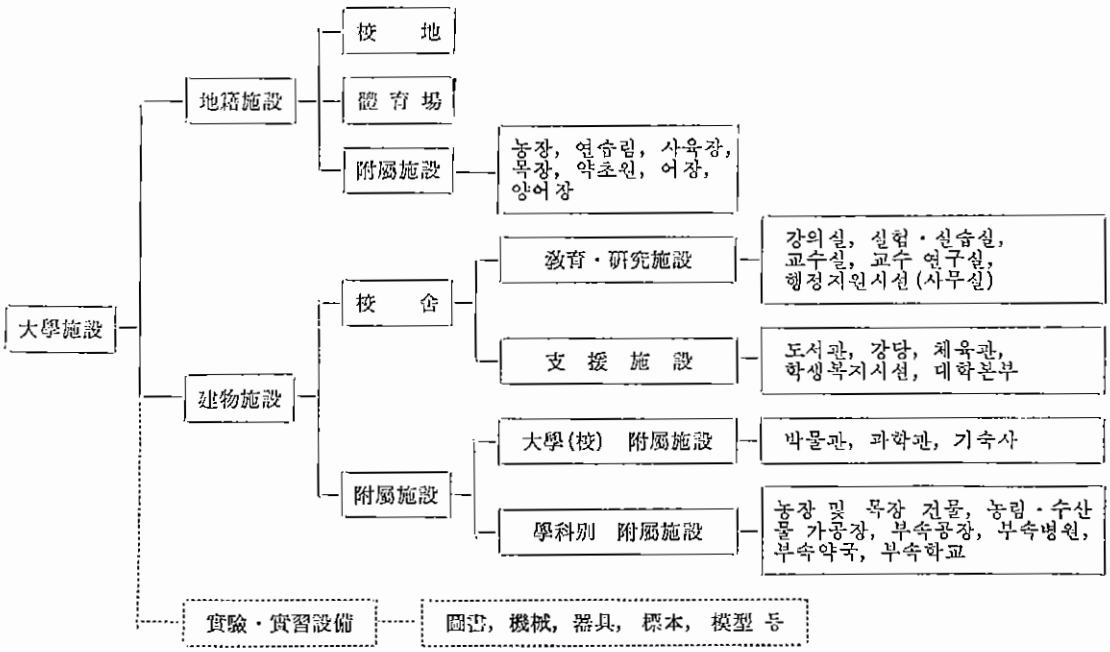
이러한 施設은 크게 세 가지, 즉 地籍施設, 建物施設 및 內部 實驗·實習을 위한 設備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우선 地籍施設이란 정상적인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확보되어야 하는 일정한 形態의 空間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을 하기 위하여 대학이 갖추어야 하는 '땅'에 해당된다. 이러한 범주에 校地, 體育場 및 附屬農場과 같은 附屬施設을 들 수 있다. 이는 집을 지을 때 '땅'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 건물이 신축되려면 우선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 建物施設이란 지적시설 이외의 外廓施設로서 敎授-學習 및 硏究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地籍施設內에 세워진 시설이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校舍라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敎育·硏究施設을 들 수 있는데, 이 시설이 敎授-學習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일차적인 장소이며,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시킬 수 있는 장소이다.

이러한 시설은 학생들의 학습 형태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수업에서 가장 강조하는 학생의 반응을 위해 정규적으로 활용되는 시설인 講義室, 둘째 학생간의 相互作用에 의한 학습을 위해 설계된 시설인 세미나실, 세째 학생 개개인의 행동에 의한 학습을 목적으로 설계된 시설로서의 實驗·實習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시설은 주로 敎科活動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一般 管理室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연구시설 이외에 校舍에는 정상적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도서관, 강당, 學生福祉施設, 체육관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교사 시설 중에서 建物施設을 제외한 附屬施設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大學(校) 또는 大學(校)내의 學科의 성격에 따라 校地內 또는 校地外의 附屬地籍施設內에 세워진 부속 건물시설이다. 한 예를 들자면 附屬農場內의 건물

〈그림 1〉 大學施設의 標準 分類圖



〈자료〉 金永哲·孔銀培, 「大學施設基準硏究」, 서울 : 韓國敎育開發院, 1981.

을 들 수 있다.

끝으로 이상과 같은 시설 이외에 設備(equipments)를 들 수 있다. 교육시설의 범주에 內部實驗·實習을 위한 設備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교육시설의 개념을 廣義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設備는 地積·建物施設에 비해 量的으로 작은 것을 말하며, 고정적이라기보다는 流動的인 것으로 敎科別로 활용되는 敎具, 즉 圖書, 機械, 器具, 標本, 模型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에서 시설의 개념 및 그 분류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건물시설 중에서 上記한 것 이외에도 창고, 수위실, 변소 및 파워 플렌트 등과 같은 소위 非實效面積(non-assignable area)에 해당되는 시설이 있다. 즉 비실효면적에 해당되는 시설은 建物의 質을 결정해 줄 수 있는 準據로 분류는 될 수 있으나 上記한 어떠한 시설에도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분석된 개념에 따라 그 대학시설의 분류를 요약·정리해 보면 앞의 〈그림 1〉과 같다. 이 분류는 시설의 종류를 모두 제시한 것은 아니며, 다만 대학시설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Ⅲ. 大學施設의 確保現況

대학시설의 확보 현황 분석은 앞에서 기술한 시설의 標準分類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자료의 제한으로 인하여 한정된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地籍施設 중의 校地와 建物施設 중에서 校舍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기초로 시설의 종합 확보율을 산출하였다.

우선 校地 確保現況을 살펴보면 〈表 1〉과 같다. 교지의 기준 면적과 확보 면적을 비교하여 그 확보율을 산출한 결과 대학(교)의 경우는 90%, 교육대학은 86%로, 전체 평균이 89%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교)의 경우에 있어서 국·공립대학이 96%로서 사립대학의 87% 보다 9% '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종합대학교보다는 單科大學의 경우가 비교적 확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은 校地의 確保 기준은 「大學設置基準令」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同令 제7조에는 "교지의 基準面積은 그 구내에 건축되는 校舍總面積의 5倍 이상으로 하되……" 라고 밝히고 있어서, 결국 校舍 총 기준 면적의 5倍 이상에 달하는 면적을 갖추어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表 1〉에서는 기준 면적과 확보 면적을 비교하여 확보율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수를 살펴보면 확보율이 훨씬 저조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表 2〉에서와 같이 대학과 교육대학을 포함하여 전체 대학은 110개교이나, 이 중 교지의 확

〈表 1〉 大學 校地 確保現況 (1984)

(단위 : m²)

구분 / 학교	학교수	학생수	기준 면적	확보 면적	부족 면적	확보율
총 계	110	626,653	28,596,529	50,368,111	3,030,403	89
대 학	99	609,853	27,837,544	49,457,074	2,920,488	90
국·공립대	21	184,430	7,855,126	13,659,063	305,616	96
종합대	10	155,162	6,382,201	9,726,893	280,868	96
단과대	11	29,268	1,472,925	3,932,170	24,748	98
사 립 대	78	425,423	19,982,418	35,798,011	2,614,872	87
종합대	32	343,159	14,643,479	26,455,146	1,977,607	87
단과대	46	82,264	5,338,939	9,342,865	637,265	88
교 육 대 학	11	16,800	758,985	911,037	109,915	86

〈주〉 1) 기준 면적은 현행 「대학설치 기준령」에 의거 산출하였음. 현행 기준령에서의 학생수는 대학의 완성준업 정원과 대학원 정원을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2) 부족 면적은 기준에 초과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산출한 순수 부족을 나타냄.
3) 확보율은 기준 면적을 초과 확보하고 있는 대학은 100%로 간주하고 산출하였음.

〈자료〉 문교부, 교육시설국 현황 자료, 1984.

〈表 2〉 校地基準 未達大學 現況 (1984)

구분 / 학교	학교수(A)	기준미달교 (B)	B/A(%)
총 계	110	32	29.0
대 · 학	99	28	28.3
국·공립대	21	4	19.0
종합대	10	2	20.0
단과대	11	2	18.2
사 립 대	78	24	30.8
종합대	32	10	31.3
단과대	46	14	30.4
교 육 대 학	11	4	36.4

보가 기준에 未達하고 있는 대학은 32개교로 그 비중은 29%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국 대학별 확보율이 71%를 나타내는 것으로 面積을 기준으로 산출한 92%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설립별로 보더라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국·공립대학보다는 사립대학이, 단과대학보다는 종합대학이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大學의 校舍 確保現況을 살펴본다. 「大學設置基準令」 제 8 조에 校舍의 기준은 제 1 항에 "대학의 校舍는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사무실, 도서관, 강당, 체육관, 학생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구분한다"로 밝히고 있으며 그 기준 면적은 共通所要面積과 專攻系列에 따른 追加所要面積으로 구분·제시하고 있으며, 제 1 항의 교수 연구실의 數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수 이상이 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시설 종류에 따른 면적은 학교에 일임하고 있는 바와 다름이 없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基準面積과 실제의 確保面積을 비교하여 그 確保率을 산출하면 〈表 3〉과 같다. 전체적으로 92%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어서 校地의 확보율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대학은 92%, 교육대학은 97%로 분석되었다. 대학의 확보율을 설립별로 보면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종합대학일수록 단과대학보다 基準面積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校舍의 확보율에 있어서도 교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面積을 중심으로 분석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로 基準의 到達如否를 單位學校別로 분석하면 그 확보율이 훨씬 저조함을 알 수 있다. 〈表 4〉에서와 같이 校舍基準에 미달하는 학교수는 전체 110개교 중에서 45개교로 40.9%로 나타났다. 면적을 기준으로 한 교사 확보율 92%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대학(교)의 경우는 42.4%의 대학이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사립대학은 48.7%로 국·공립대학의 19.0%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환언한다면 사립대학의 경우는 그의 절반에 해당하는 대학이 기준에 미달하는 校舍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校舍基準 미달학교 중에서 서울所在 대학 중 12개 종합대학교가 地方에 分校 내지는

〈表 3〉 大學校舍 確保現況 (1984)

(단위 : m^2)

구분 / 학교	기준 면적	확보 면적	부족 면적	확 보 율
총 계	5,723,311	6,209,758	436,010	92
대 학	5,571,513	6,032,984	430,906	92
국·공립대	1,575,016	1,839,479	53,776	97
종 합 대	1,280,441	1,527,290	38,416	97
단 과 대	294,585	312,189	15,360	94
사 립 대	3,996,487	4,193,505	377,130	91
종 합 대	2,928,698	3,167,047	162,439	95
단 과 대	1,067,789	1,026,458	214,691	80
교 육 대 학	151,798	176,774	5,104	97

주 : 〈表 1〉과 同一함.

〈表 4〉 校舍基準 未達大學 現況(1984)

구분 / 학교	학교수(A)	기준미달교(B)	B/A(%)
총 계	110	45	40.9
대 학	99	42	42.4
국·공립대	21	4	19.0
종합대	10	2	20.0
단과대	11	2	18.2
사 립 대	78	38	48.7
종합대	32	9	28.1
단과대	46	29	63.0
교 육 대 학	11	3	27.3

〈表 5〉 學生 1人當 校地 및 校舍面積 現況(1984)

구분 / 학교	校地		校舍	
	基準	確保	基準	確保
총 계	45.6	80.4	9.1	9.9
대 학	45.6	81.1	9.1	9.9
국·공립대	42.6	74.2	8.5	10.0
종합대	41.1	62.7	8.3	9.8
단과대	50.3	134.9	10.1	11.1
사 립 대	47.0	84.1	9.4	9.9
종합대	42.7	77.1	8.5	9.2
단과대	64.9	113.6	13.0	12.5
교 육 대 학	45.2	54.2	9.0	10.5

〈주〉 기준 및 확보 면적을 학생 정원으로 나누었음. 이 중에서 확보면적은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을 제외하지 않고 적용하였기 때문에 기준 면적보다 크게 나타났음.
〈자료〉 문교부, 교육시설국 현황 자료, 1984.

제 2캠퍼스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 분교 중에서 校地가 基準에 미달하고 있는 대학은 하나도 없으나, 校舍基準에는 9개 대학이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本校와는 달리 학생정원에 비해 교지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나,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실 등의 校舍는 많이 부족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이상에서 분석한 校地와 校舍의 基準 및 硏究面積을 학생 1인당 面積으로 산출·제시하면 위의 〈表 5〉와 같다. 전체적으로 單位學校別 事例가 아니고 총량적인 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基準面積보다는 確保面積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校地 및 校舍의 與件이

〈表 6〉 大學圖書館 確保現況(1984)

구 분	계	국·공립	사 립
학 생 정 원	609,853	184,430	425,423
현 학 생 수(A)	772,907	206,742	566,165
도서관 좌석수			
기 준	121,970	36,886	85,084
확 보(B)	112,108	27,669	84,439
장 서 수			
기 준	18,295,590	5,532,900	12,762,690
확 보(C)	12,167,405	2,874,899	9,292,506
좌석수 확보율(%)	91.9	75.0	99.2
장서 확보율(%)	66.5	52.0	72.8
B/A (%)	14.5	13.4	14.9
C/A (권)	15.7	13.9	16.4

〈주〉 1) 현 학생수 및 도서관 좌석과 장서의 확보 현황은 1983년 기준임.
2) 도서관 좌석 기준은 학생 정원의 20%, 장서수 기준은 학생 정원 1인당 30권을 적용·산출하였음.
〈자료〉 문교부, 대학행정과 학생 정원 자료, 1984. 문교통계연보, 1983.

좋은 대학은 基準面積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데서 기인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校舍보다 校地의 경우가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학의 校舍 중의 일부로 포함되었던 圖書館의 현황을 살펴보면 〈表 6〉와 같다. 주로 圖書館의 質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 열람실의 座席數 및 장서수의 확보가 基準과 비교·제시되고 있다. 비교 연도가 1년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없지만 1년 동안 도서관 좌석수 및 장서수의 확보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대학(교)의 좌석수 확보율은 92%에 달하고 있다. 이를 설립별로 보면 국·공립이 75%, 사립이 99%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립대학은 비교적 만족할 만한 수준의 좌석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서 확보율에 있어서도 그 基準은 "학생 정원 1인당 30권 또는 학과당 5천권 중 많은 수 이상의 도서와 매년 학생 정원 1인당 3권 이상을 추가한 도서"로 규정되어 있으나, 학생 정원 1인당 30권의 도서 확보만을 기준으로 가정하여 장서 확보율을 산출한 결과 국·공립대학이 52%,

〈表 7〉 大學施設 綜合確保率(1984)

학 교 구 분		종합 확보율(%)
총	계	91.3
대	학	91.5
	국·공립대	96.8
	종 합 대	96.8
	단 과 대	95.0
	사 립 대	90.0
	종 합 대	93.0
	단 과 대	82.0
교 육 대 학		94.3

〈주〉 1) 종합 확보율은 校地와 校舍施設만을 대상으로 산출하였음.
2) 종합 확보율 산출을 위하여 校地 25%, 校舍施設 75%의 加重値를 고려하였음. 한 예로 校地確保率 90%의 경우는 종합 확보율 속에서는 22.5%로 나타남.

〈자료〉 문교부, 교육시설국 현황 자료, 1984.

사립대학이 73%로, 전체 평균이 67%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基準適用의 差異로 인하여 실제의 확보율은 이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현재의 在籍學生數를 기준으로 할 때의 좌석수 확보율은 국·공립과 사립대학이 각각 13.4%와 14.9%, 전체 평균 14.5%로 나타나고 있어 도서관의 기준 '20% 이상'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 1인당 장서수에 있어서도 평균 15.7권으로 아주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생 정원'을 기준으로 적용할 때의 확보 기준이 현재 在籍學生數의 그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校地 및 校舍의 확보율을 기초로 하여 綜合確保率을 산출하면 위의 〈表 7〉과 같다. 종합 확보율은 校地를 25%, 校舍를 75%로 가중하여 산출한 것이다. 그 결과를 보면 대학(교)이 92%, 교육대학이 94%로서 전체 평균이 91%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을 설립별로 보면 국·공립대학이 96.8%로서 사립대학의 90%보다 6.8% '포인트'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국·공립과 사립의 경우 모두 단과대학보다는 종합대학이 종합 확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大學施設의 當面問題

대학시설의 당면 문제는 우선 현황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를 제시하고, 다음으로 「大學設置基準令」 중의 시설 기준이 지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우선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시설 확보율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현황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校地 및 校舍의 확보율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우기 현행 「대학설치기준령」은 1955년에 제정·적용되어 오다가 1983년 6월 25일에 改正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시설기준 자체가 낮게 설정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대학은 낮은 확보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質이 여러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쾌적한 시설 여건의 구비 여하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의 質向上을 위해서 시설 부족이 큰 장해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도서관의 藏書數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도서관의 기준과 관련하여 열람실의 좌석수 및 장서수의 확보가 부족하다. 특히 좌석수는 기준에 비해 90% 이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서수에 있어서는 그 확보가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장서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제로 기술하게 될 「授業施設」 및 「研究施設」에서 장서의 質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히 분석될 수도 있겠지만, 量的인 측면에서 絶對量이 부족하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학과별로 10종 이상의 전문분야 定期刊行物"을 갖추어야 한다는 기준을 고려한다면 이의 확보는 훨씬 더 저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째, 서울所在 大學 지방 分校의 시설 확보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설확보의 측면에서 볼 때 지방 분교정책에 대한 再考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대부분의 分校가 本校의 경우보다 校地의 확보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基準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나, 敎授·硏究活動이 이루어지는 校舍의 확보율은 그 기준에 도달한 대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판단한다면, 地方의 分校政策이 서울의 인구증가 요인을 억제하며, 지역간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등의 당초의 의도는 논외로 하더라도 시설여건이 本校 또는 서울所在 大學에 비해 떨어지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다른 교육 조건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교육의 質向上에는 많은 차질을 예상할 수 있다.

네째, 현행 시설기준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학생수가 문제가 된다.

현행 「대학설치기준령」에서의 시설기준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생수에 관해서는 '학생 정원'을 적용하고 있다. 즉 모든 시설의 기준 면적은 학생 정원(대학 및 대학원의 학생 정원)에 따라 산출되어야 하는데, 이중에서 대학의 학생 정원은 完成 卒業定員(연도별 졸업정원 중 최후 연도 졸업정원의 4배)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완성 졸업정원은 현재의 재적 학생수와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시설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정확한 시설 소요를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더우기 현행 卒業定員制의 운영은 당초의 계획과 비교할 때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으므로 시설기준의 산출을 위하여 '학생 정원'을 적용하는 것은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행 시설기준령은 校舍의 종류별 基準이 미흡하고 있다.

현행 시설기준령은 크게 校地, 體育場, 校舍, 附屬施設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校地, 體育場 및 附屬施設에 관해서는 비교적 상세히 기술되고 있으나, 校舍에 대해서는 시설의 標準分類에서 밝힌 敎育·硏究施設과 支援施設을 합하여 그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시설의 종류별로 기준이 산출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基準令을 적용받는 입장에서 본다면 강의실, 실험·실습실 및 교수실 등과 같은 교육·연구시설보다 도서관, 체육관, 강당, 학생회관 등과 같은 支援施設의 규모를 보다 많이 확보하여 合算한 面積이 校舍基準面積에 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현행 基準令에서도 校舍 基準面積을 系列別 算出基準과 共通 算出基準으로 구분·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敎育·硏究施設과 支援施設의 基準에 관한 세분화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보다도 더 세부적으로 必須施設에 관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강의실, 실험·실습실 등에 관한 기준이 模型 敎育課程의 운영을 통하여 설정되어야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데 현행 기준은 이러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大學施設에 관한 계속적인 연구가 부진하고 있다.

대학시설에 관한 연구는 교육정책 및 교육 운영 전반에 관련되는 것이다. 교육정책이나 學事運營의 形態가 변함에 따라 시설의 所要 및 活用에 따라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행 시설기준령도 實驗大學 운영, 卒業定員制, 全日授業制 등의 정책을 검토하여 이를 施設所要 판단에 반영시켰다. 따라서 현행 시설기준령에서의 시설기준은 개정 당시의 대학교육에 관한 제반 제도 및 정책을 그대로 유지·존속시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여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에 변화가 초래되거나 또는 새로운 대학교육의 개혁사업이 추진된다면 그 적합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의 역할 및 기능이 점차 다양해지고 대학의 규모도 대규모화되어 감에 따라 대학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반 시설에 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시설에 관한 연구는 교육학은 물론 건축학, 조경학, 심리학 및 기타 관련 분야 학문의 성격이 모두 반영되어 이루어질 수 있는 소위 多學問的인 접근(inter disciplinary approach)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끝으로 시설의 확보 및 시설기준에도 문제가 있지만 확보된 시설의 효과적인 활용이 부진하다는 점, 즉 시설 활용율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시설 활용률은 대학이 설정한 敎科目數, 講座規模, 講義計劃書 등의 교과과정의 운영과 대학이 확보하고 있는 강의실, 실험·실습실을 비롯

한 제반 시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련시키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대학시설은 외국의 대학과 비교하여 시설 활용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량의 시설을 확보하려는 노력만큼 活用率提高를 위한 노력이 이에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V. 結 言

이상에서 대학시설의 개념 및 標準分類를 고찰하였고, 시설의 확보 현황 및 당면문제를 기술하였다. 특히 시설의 확보 현황을 종합적으로 標準分類에 따라 분석하여야 하나 자료수집 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한정된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종합적이며 다각적으로 시설의 확보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를 종합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특히 대학시설의 확보 수준은 대학교육의 質을 결정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바로메타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대학시설의 기준과 확보 현황은 제반 교육정책과 학사일정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